

코스피 변동성 ↑... “트럼프 재선 염두” vs “2분기 실적 중요”

바이든, 美 대통령 대선 출마 포기
코스피, 전 거래일비 31.95p ↓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익률 방어
2분기 실적시즌 도래... 반등세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변동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증시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47포인트(0.16%) 하락한 2790.99에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31.95p(-0.98%) 떨어진 2763.51로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증시 약세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을 접한 아시아 증시는 그 여파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닷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16% 내린



코스피가 전 거래일(2795.46)보다 31.95포인트(1.14%) 내린 2763.51에 장을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28.72)보다 18.76포인트(2.26%) 급락한 809.96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39599.00로 장을 마감하며 4만선이 깨졌고, 대만 가관지수도 2.68% 떨어진 22256.99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과 ‘트럼프 대세론’은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두고는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로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순 있지만, 정황상 민주당이 트럼프의 승기를 꺾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미국 대선 직전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코스피(2795.46)는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같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배인 265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대선 국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기업의 ‘2분기 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추세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와 이벤

트는 시장의 투자심리, 수급 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단기 등락은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효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이 계속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발인의 증시 영향력이 높은 구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주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2분기 실적에 더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오는 25일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23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테슬라가, 25일(현지시간)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 도래와 함께 급락을 극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사투자자문업자·불법리딩방 제재 시행

금감원 ‘자본시장법’ 내달 개정 시행
정식업자에게만 양방향·유료 허용
네이버·카카오, 리딩방 단속 강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멤버십’ 운영 시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예정이다. 이에 ICT업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를 이번 법 개정에 발맞춰 강화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를 등록한 업

자에게만 허용된다. 무료 회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와 업무협약만으로는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정사유 및 직권발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제한이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실질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ICT업계도 자체적으로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불법 리딩방’ 단속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을 통해 주식·가상자산 등 투

자 관련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하고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유료·무료 구별 없이 이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나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자사의 폐쇄형 SNS ‘밴드(band)’에서 투자 리딩 관련 해 강화된 모니터링 및 징계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되면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키움증권,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림어’ 1기 성료

키움증권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림어’ 1기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키움드림어는 키움증권과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UIC)가 손잡고 만든 경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위한 건전한 경제 교육을 목표로 한다. ‘키움드림어’ 참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장원재·김종민 대표체제 구축

기업금융·관리에 김 신임대표 선임
기존 장 대표, S&T·리테일 맡아

메리츠증권이 김종민 메리츠금융지주 겸 메리츠화재 부사장을 신규 선임해 기존 장원재 대표와 각자 대표이사체제를 구축했다.

메리츠증권은 김 신임대표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관리 대표에 신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대표는 기업금융(IB)과 관리를, 기존 장대표는 S&T(Sales & Trading)와 리테일을 각각 맡는다.

메리츠증권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 경영, 분야별 책임경영 체제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증권 양대 핵심사업인 S&T와 기업금융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사업인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각자 대표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김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을 맡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기업 대출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금융 전문가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다. 향후 메리츠증권 투자운용뿐 아니라 미래 성장 사업 발굴에도 매진하는 등 효율적 자본 배치를 통한 증권의 추가 성장 기회 마련에 전념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금융공학 전문가다. 자산운용, 상품 기획, 리스크 관리 등 핵심적 금융업무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S&T(Sales & Trading), 리스크 관리, 리테일에 집중해 회사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메리츠증권 S&T 부사장을 맡으며 주식·채권·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24시간 실시간 환전서비스’로 접근성 높여

환전거래금액, 전년비 309% 늘어

KB증권은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며 환전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KB증권은 KB국민은

행과의 협업 및 내부 시스템 개발을 통해 2023년 12월부터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는 환전 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 서비스로, 실시간 시장 환율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전거래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했고, 환전거래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대처에 제한이 있었지만, 24시간 실시간 환전 서비스 제공 후 환전거래건수 및 환전거래금액이 대폭 상승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니즈를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환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일요일 제외)에도 환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다. /신하은 기자 godhe@